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다올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1. 5.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PF대출 등 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별표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

회사는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 취급시 PF대출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2)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대출규정」 제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2023.9월말 현재 다올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5,118억원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연체율이 급등하였고,

토지 낙찰가율 하락 등으로 담보 매각을 통한 대출금 회수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증가하였음에도,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커버리지 비율은 타 저축은행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채권회수 방안 강구, 부동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관리,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신용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은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유지할 필요가 있고, 내규「직제규정」에 의하면 리스크관리 업무, 신용평가모델(CSS) 운영 등은 리스크관리본부내에서 담당하며 여신 영업조직과 구분해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나

회사는 2021.12월 이후 신규대출 취급 확대정책으로 인해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반면, 2022.3월 ~ 2022.11월 기간 중 개인신용대출 신규고객에 대한 연체경험율은 직전 9개월 연체경험율 대비 높게 나타나고,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승인 및 한도, CCS모델 개발 및 운영 등 신규정책을 영업부서인 개인금융본부 내 개인금융전략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책결정에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CSS모델의 재조정 등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고도화하는 한편,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승인 및 CSS모델 개발 등 신규정책을 담당하는 현 개인금융전략팀의 업무를 리스크관리본부 등 영업본부와는 독립된 부서(또는 팀)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등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